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계기관 머리 맞대

## 도청서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 27일 취업박람회 참여 협조 요청 및 지원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와 대학의 협업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자치도는 27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에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유학생 유치 지원 정책은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지역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복을 한국어 교육 1번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전략과 비전, 목표를 공유하며 고교 단계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 전북형 비자특례 발급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교통협력국장은 "외국인 인재들이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인구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가 도-대학-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는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가 주관하며 도내 우수 중소기업 26개 기업이 참여해 1:1 현장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취업 노하우 공유, 금융·노동·비자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유학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os.or.kr)에서 참여기업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와 대학의 협업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전북자치도의 미래, 농생명 혁신에서

### 25일 '제1회 전북포럼'서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방안 모색 하림 김홍국 회장, '지역 농식품 산업 비전' 특별연설 나서 농식품 밸류 체인 혁신방안·농생명 혁신체계 구축 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찾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6월 25일 익산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일년을 맞는 이번 포럼은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농생명산업을 위한 혁신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빈센트 장 마틴 특별·기조연설로 시작해 농식품 Value Chain 혁신,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 등 세션별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별연설에는 '글로벌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농식

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나선다. 이날 김홍국 회장은 하림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정신과 긍정적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지역 농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혁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홍국 회장은 병아리 10마리를 밀친 삼아 사업을 시작해 슬한 난관을 이겨내며 하림을 국내 제10위권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병아리 10마리 성공 스토리로 유명한 지수성기정 CEO다. 이 외에도 '농식품 Value Chain 혁신' 세션에서는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추진전략', '식품 시스템의 변천사',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과 대응

과제'가,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 세션에서는 '산업계·학계·연구·행정계 간의 파트너십 형성방안', '전북 지역 농생명 바이오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태령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 등 중앙부처 및 국회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에밀리아노 와이설피츠 아르헨티나 대사, 구 정치 주광주 중국영사관 총영사, 쉐야오 탕 FAO 한국협력사무소장 등 해외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농생명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해 국제포럼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줄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전북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학계, 정치, 기업, 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중한 자리"라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새로운 전북 만들자'

###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2025 연구조사사업 공모... 7월 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에 수행할 연구조사사업을 2024년 7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자는 목표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과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

원장은 "2025년 신규 연구조사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와 감염병, 식품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조사사업 공모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연구조사사업 공모결과 40건이 제안되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중이용시설 환경수계에서 분리한 레오넬라균 특성 연구, △산단 지역 초미세먼지 영향요인 연구, △산단 백질보충제 유해물질 함량 조사, △사업장 악취물질 배출특성조사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연구조사사업 발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안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jihe.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청, 플라즈마 기술 관련 신산업전략 아카데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일 '플라즈마 기술의 이해와 새만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군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개발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섭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 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최용섭 소장은 미래 시장을 이끌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즈마의 정의와 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응용 사례, 새만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향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플라즈마 기술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내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이 기후변화와 매개체 감시사업 수행 중 제3급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18일 도내에서 올해 처음 채집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발견된 시기는 작년 6월 28일에 처음 발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10일 빠르다. 이는 온난화와 최근 찾아온 폭염과 함께 모기 활동 시기가 빨라져 작은빨간집모기도 빨리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한다고 알려진 작은빨간집모기는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논이나 축사, 집 주변 물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모기로서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중추신경계 감염질환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감염되면 약 250명 중 한 명 정도가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은 백신을 통한 예방이 가능하므로 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모기매개감염병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야외활동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농촌 양성평등 인식 확산 교육... 10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농업인회관에서 한국농어촌경영인 전북도연합회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추진이 되어 도내 농업인 단체를 순회하며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인공교육 전문강사인 오영렬 강사를 초청한 이날 교육에는 14개 시·군 회장과 부회장 50여 명이 참여해 양성평등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업 경영에서의 성평등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 2024 전북자활어울한마당 개최

우수 자활생산물 전시·홍보 부대행사로 인지도 높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인 '2024 전북자활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광역·지역 자활센터 관계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공포패 전달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 △퍼포먼스 △어울한마당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활 활성화에 기여한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문화공연, 레크리에이션, 공동체놀이 등 어울 한마당 행사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존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자활의지를 가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부대행사로 무주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에서는 17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생산을 전시해 자활사업을 소개하고 우수한 자활생산물에 대한 홍보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 성과와 수고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종사자, 참여자와 함께 탈빈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자활의 꿈은 한 개인의 힘으로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 자활 가족들은 자신은 물론, 사회적 역경과 싸워 이긴 진정한 챔피언이다"라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지원과 저소득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올해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등의 사업에 총 696억원을 투입하고 2,500여 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지원해 자활 자립에 나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 광역발전 전략 강구

### 새만금청, '메가시티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 용역의 과업 수행계획 보고에 이어, 전문가들이 새만금의 중심지로 한 광역 발전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유치·고용 창출이 활발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광역 발전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을 넘어 군산·익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광역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전략산업 연계·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전주·교육 여건 조성 등 공동의 경제권·생태환경 구축 방안과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사업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유선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후 10.2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광역 발전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했다. /이만호 기자

특히, 새만금 인근의 군산·김제·부안과 더불어, 익산까지 이어지는 발전 축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식품 허브 조성을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자치도의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는 등 인근 지역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광역 발전전략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간척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시, 통합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용역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메가시티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하나가 되어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연계·협력에 기초한 광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새만금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점검

### 윤동욱 도민안전실장, 현장 방문으로 주민들과 소통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폭염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정읍 삼화그린노인정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냉방시설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현장에서 무더위쉼터의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불편함이 있는지 살피며,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시설로 냉방시설과 쉼터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여 폭염 시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인근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 가동상태와 관리 상태를 함께 점검하였다. 스마트 그늘막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설치되며, 환경에 따라 자동 개

폐되어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전북자치도에는 5,586개소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스마트 그늘막을 포함한 폭염 저감시설 1,532개를 활용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폭염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의 폭염 도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